

갤러리 색즉시공



바라보기

“당신의 온전한 성품에 마음 모아 합장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입니다.

지금...!”

그림·글 희상 스님

행복과 향복

(幸福) (享福)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내가 주인공’ 긍정적 삶 필요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해”

혼하기 전, “그 아이 어디가 좋았니?” 하고 물어보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게 좋아.” “어떤 배려심?” “우리 집은 풍족한 집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나를 만나더라. 그게 배려심 아닐까?” 사돈을 처음 만나던 날 그 말을 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좋다고 하던가요?” 하고 물었다. “언제 보아도 한결같고 하더군요.” 앞 뒤 중간이 다 좋다는 게 아닌가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사돈이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우리 딸이 살림을 못하는 데 어떻게 하죠?” “옛날에는 유모, 침모, 찬모 다 있었어요. 노후에 제가 할 일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들이 새로운 모성을 만나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저희들끼리 잘 살면 죽할 뿐 다른 것은 기대하지 않았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 며느리가 될 아이의 모습을 보니 나의 처녀 적 모습을 보는 듯 했다. 후에 우리 집에 놀러온 예비 며느리를 여동생이 보더니, “너희 엄마 처녀적 모습과 똑같다.” 고 했다. 나만 그렇게 느끼 게 아닌 모양이다. 사람의 마음이 맑으면 밖으로도 빛이 난다. 며느리를 보니 언어가 반듯했고, 깊이가 있어보였다. 나는 두 아들을 생산하러 이 세상에 왔고, 며느리는 대보살 노릇을 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고 믿고 있다.

상견례 때 “저는 아들 둘을 교과서대로 키웠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차를 오늘도 타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위가 문을 열어주는 차를 타세요.” 하고 말했다니 고마워했다. 얼마 전 아들이 말했다. “엄마, 전문의 되고 나면 엄마한테도 용돈 주고 싶어요.” “엄마는 비바람만 피하고 밥만 먹으면 돼. 너희들 끼리 잘 살면 돼.” “엄마는 자식 키워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좀 억울한 얼굴을 하는데, 좋은 일 좀 시키면 좋지 않아요. 결혼 후의 삶은 그 애들의 문제이며 나는 그 애들이

세워놓은 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실천할 뿐이다.

사돈이 천주교를 믿어서 목주 두 개를 사서 “열심히 믿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넣었다. 우리 아들을 사돈댁에 선물한다고 생각하고 보냈더니, 그렇게 마음이 가볍고 흐뭇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쁘기도 하고 밋기도 한 것이다. 며느리 나이에 나는 무엇을 알아서 제대로 했겠는가 생각하면 아무런 불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갓 시집은 며느리가 밥을 태웠다. 어쩔 줄 모르는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내가 두터운 솥을 샀어야 했는데 밀이 얇은 솥을 사서 네가 밥을 태웠구나.” 하고 미안해 하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내가 갓 시집을 왔을 때는 시어머니께서 밥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밥을 시켜서 탔구나. 내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무랐다. 이번엔 새 신랑이 나섰다. “내가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색시가 누룽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밥을 태웠으니, 제 탓입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 탓이라고 여기면 그 집엔 불화가 없다. 화합은 천신도 찬탄한다고 하지 않는가. 평생 마음공부만 하신 스님들도 돌아가실 때 사좌자들에게 “화합하고 살라” 는 말씀을 남긴다고 들었다.

“엄마 피곤하시죠? 누워 봐요. 제가 주물러 드릴게요.”

결혼한 아들이 잠깐 다니러 와서도 그렇게 말하고 어깨며 등을 주물러 주면 죽하지 않은가. 며느리는 큰 보살의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내 삶보다는 나를 것이다. 아이들이 긴 호흡으로 키우면 좋은 인연이 된다.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를 닮는다. 알고 지내는 거사님의 얘기다.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여자 친구가 아이를 가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딸처럼 받아들이세요. 아드님의 여자 친구도 그 집에서는 기가 막힌 딸입니다.” 거사님은 아들의 여자 친구를 집으로 데려다가 학교에 다니게 하고, 학교를 졸업시키고 아이를 낳게 했다. 아들의 학교에 찾아가니 무슨 운명인지 자신의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아들의 담임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선생님께 술 한 잔을 내고는 나에게 와서 “우리 부부도 고3 때 아들을 임신해서 부모들의 눈을 피해 고향에서 도망 왔다” 고 고백했다. 아들의 일로 심란했던 두 부부가 설악산 봉정암에 가서 기도를 하고 돌아와서는 아들에게 그랬다는 것이다. “네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살이 되었겠느냐?”

지나가는 사람에게 굴 하나 건넬텐데,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가 나가보니 길에서 굴을 건네주었던 사람이 사위감이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자식들은 엄마가 인욕하고 살아온 세월을 모르지 않는다. 엄마가 인욕하고 산만큼 잘 커준다. 불교를 접하고 나서 보니 우리 집이 수행처이고 극락이었다. <여여원 원장>

지금 여기, 현재에만

파스칼은 “병도 환영해야 한다.” 고 했다. 나는 유방암 초기에 수술을 받고 요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인생의 파도타기가 시작될 셈이다. 그러나 사람은 파도타기 속에서 성장해나가지 않는가. 파도가 격렬하게 출렁이며 지나가면 수면이 고요해지듯이 삶에서도 거친 파도가 칠수록 내면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생을 축제처럼, 순례처럼 여기며 살기를 기원한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동선에 흔들림이 없으면 된다. 나는 ‘덜다’ 소리, ‘출다’ 소리를 잘 안한다. 상처에 적당한 약을 써야 하는 것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그때마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는구나, 업을 소멸시키는구나 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스스로 그것을 축하한다. 누가 해주길 기다리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선물한다.

가급적 재미있는 일을 만들며 살려고 한다. 순간에 그치는 기쁨이라 하더라도 좋은 업으로 상승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엄마 안 힘들어?” 친구들과 산에 가려고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자 아들이 배낭을 달라고 하더니 끈이 짧다며 늘려주었다. 순간 행복한 마음이 조용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들이 행복해야 집안 자체가 행복해진다. 집에 오면 엄마가 얼굴 한 번 찌푸리거나 한숨을 내리쉬지 않아야 한다.

인생은 자기가 연출한 무대 위에서 배우로 사는 것이다. 자기가 만족하면 주변 배우가 되어서 엑스트라까지 다 하는 것도 되는 것 아닌가. 만족하면 무대에서 내려와도 즐거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회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는 자기 인식, 긍정이 필요하다. 그게 바탕이 안 되면 영원히 즐거울 수가 없고 남의 것만 구경하다가 마는 것이다.

다음은 <신심명(信心銘)>에 있는 내용이다.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도는 화통해져 명백히 드러난다. 간택을 싫어하고 증애가 없는 마음에서 털끝만큼이나 차가 있으면 하늘과 땅의 간격으로 벌어진다. 지극한 도가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순과 역이 있게 하지 말라.”

자주 구절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다스린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는 생각이 우리의 삶 전부를 지배하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싫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며, 이것이 바로 윤회의 바퀴를 돌게 한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기대하지 말고 현재에 사로잡히지 말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라.” 요즘 내 마음속에 있는 잠언이다.

네 덕 내 탓

“나 혼자 좋은 것” 은 행복이고, 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향기를 줄 수 있는 것은 향복의 단계다.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면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나는 늘 아이들에게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다.’ 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 아이들이 결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67권째 저서 출간!

바로유마경 보인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불>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 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응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한자들에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구운			
가루 자색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색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색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색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통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사전에 운전만을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반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37-160번지) www.kw-tec.co.kr